2026년 1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증시 하락 배경과 단기 관전 포인트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인도 증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단기 조정 국면 진입

인도 증시는 연초 사상 최고치(1/2, 26,328.5pt)를 기록한 이후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2일 기준 NIFTY50 지수는 전고점 대비 약 2% 하락했다. FY2026년 3/4분기(2025년 10~12월) 실적 시즌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NIFTY50 구성 종목들의 완만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관세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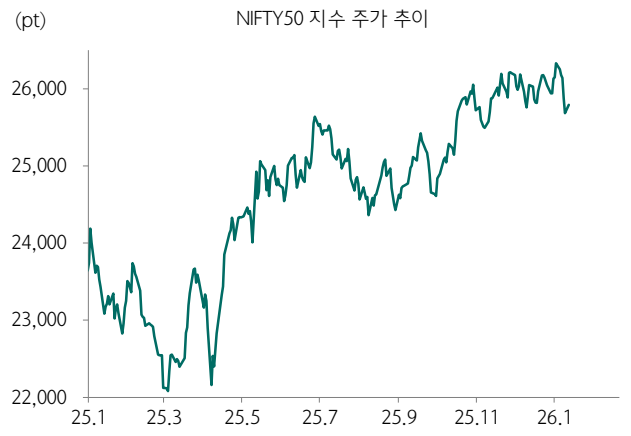
우선, 시간 순으로 앞선 이슈인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의 경우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글로벌 1% 미만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단기 유가 및 인도 경제 전반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며, 증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베네수엘라산 원유 생산이 확대될 경우 중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제약할 수 있어 원유 수입 의존도(88%)가 높은 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능할 여지도 있어 수입원 다변화 측면에서 우호적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릴라이언스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재수입을 위해 미국 허가 승인을 추진 중이다. 상기 요인들을 감안하면 인도 증시 급락의 주된 원인을 베네수엘라 이슈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최근 변동성을 키운 핵심 요인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이다. 동 법안은 2025년 7월 발간 자료에서도 언급했던 법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 대해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년 4월 상원 8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발의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H.R.2548이 제출된 상태다. 법안 발의 이후 절차상 진전은 없는 상태이나, 트럼프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승낙했다는 보도와 미 상무장관의 발언(모디 총리와의 통화 부재로 협상이 멈췄다는 취지)이 맞물리며 미·인 관세 협상 리스크가 재부각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기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여러 시나리오 중 전면 무효 또는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절충적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며 투자심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특히 가장 높은 관세로 인해 부담이 가중됐던 인도에 대한 과도한 경계 국면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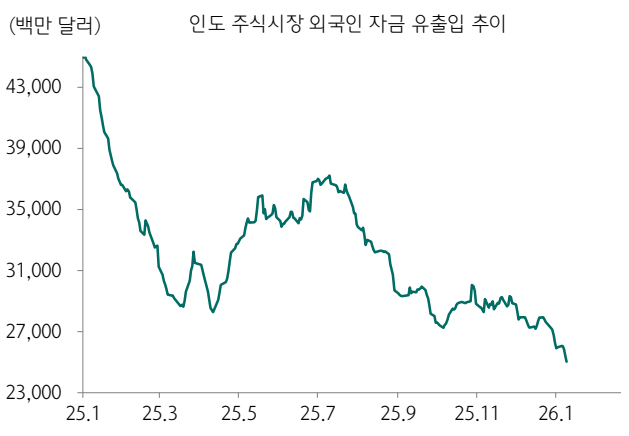
물론 해당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우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된 러시아 제재 법안은 정식 입법 트랙을 거치는 사안인 바, 대법원 판결이 관련 리스크까지 직접적으로 제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무효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과거처럼 관세가 즉흥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① 대법원 판결의 범위, ② 무효 결정 시 행정부의 우회 카드 가시화 여부, ③ 러시아 제재 법안 트랙의 실제 진전이다.

차트 1.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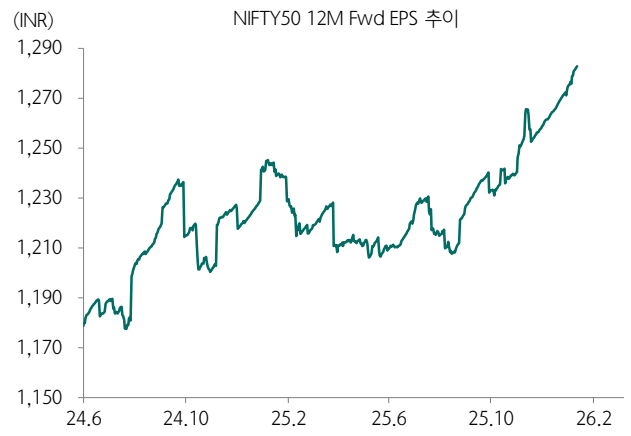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2. 인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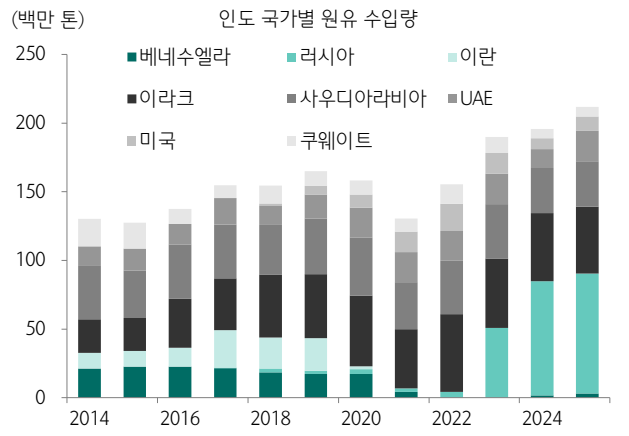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차트 3. 인도 NIFTY50 지수 12MF EPS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차트 4. 인도 국가별 원유 수입량



자료: Financial Times, 하나증권